[UCI]I804:24011-200000239487

2010년 2월
석사학위논문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원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이 명 희

2010년 2월 석사학위논문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 조사 이 명 희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원 중심으로-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Opening of Health Care Services

- Dental Clinic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2010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이 명 희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 조사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원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동 기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이 명 희

목 차

ABSTRACT ····· v

I. 서론 ····· 1
1.1. 연구의 이론적 배경 ····· 1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
1.3. 서론 ····· 8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1
2.1. 연구 대상 ····· 11
2.2. 연구 방법 ····· 11
2.3. 자료 분석 ····· 12

III. 연구 결과 ····· 13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3
3.2.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여부 ····· 14
3.2.1. 일반적특성별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 ····· 14
3.2.2. 일반적특성별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견해 ····· 16
3.2.3. 일반적특성별 의료시장개방 정보습득경로 ····· 18
3.2.4.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긍·부정 견해의 순위 ····· 19
3.3.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보완요소 ····· 20
3.3.1. 연령층별에 따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보완요소 ····· 21
3.3.2. 근무경력에 따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보완요소 ····· 22
3.3.3.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에 따른 보완요소 ····· 23
3.3.4. 의료시장개방 견해에 따른 보완요소 ····· 24
3.4.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의료서비스 종류 ····· 25
3.4.1. 연령과 근무경력에 따른 치과의료서비스 종류 ····· 25

3.4.2.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와 견해에 따른 치과의료서비스 종류 ····· 26
3.5.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 27
3.5.1. 연령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 28
3.5.2. 근무경력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 29
3.5.3.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 30
3.5.4. 의료시장개방 견해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 31

IV. 총괄 및 고안 ····· 32

V. 결론 ····· 36

참고문헌 ····· 37

표 목 차

표 1. 연구방법에 따른 설문문항 구성 ····· 12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 13
표 3.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치과위생사 인지여부 ····· 15
표 4.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견해 ····· 17
표 5. 의료시장개방 정보습득경로 ····· 18
표 6. 의료시장개방의 긍·부정적 견해에 따른 이유 ····· 19
표 7.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보완요소 ····· 20
표 8. 연령에 따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보완요소 ····· 21
표 9. 근무경력에 따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보완요소 ····· 22
표 10.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에 따른 보완요소 ····· 23
표 11. 의료시장개방 긍·부정 견해에 따른 보완요소 ····· 24
표 12. 연령과 근무경력에 따른 치과의료서비스 ····· 25
표 13.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와 견해에 따른 치과의료서비스 ····· 26
표 14.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교육요구과목 ····· 27
표 15. 연령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교육요구과목 ····· 28
표 16. 근무경력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교육요구과목 ····· 29
표 17. 인지여부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교육요구과목 ····· 30
표 18. 견해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교육요구과목 ····· 31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진행과정 ····· 10

ABSTRACT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Opening of Health Care Services

-Dental Clinic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yung-Hee Lee, B.S.
Advisor : Prof. Dong-kie Kim, D.D.S., M.S.D., Ph.D
Department of 키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ience, Chosun University.

Objectives: In the constantly evolving health care industry, the area of dental care needs to be prepared for opening of health care services, not only to meet the competition but also to secure competitive edge. By conducting research on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this fiel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useful as a basic foundation for stimulating appropriate response from the dental medical community to opening of health care services.

Subjects and Methods: A group of 150 dental hygienists was selected from 306 hygienists working at 142 dental clinics listed on the membership directory, issued by Korean Dental Association in 2008. The questionnaire includes 4 general questions, 5 items related to the awareness of opening of health care industry, 13 questions related to complementary factors, 10 related to the prerequisites for the degree in hygiene science, and 1 the need for coordinated hospital system. There are a total of 33 questions. The 5-point Likert scale (except the general items) is used to quantify the respnses.

Results

1. Approximately 14.7% of the dental hygiene companies became aware of the opening of the health care services ($p<0.05$), and the positive opinions accounted for 23.3% ($p>0.05$) of the responses.

2. Regardless of their experience and awareness, improvement of foreign language was the hightest with 953%, improvement of quality care was sencond with 88.0%, and improvement in diagnosis and treatment care was third with 86.0% ($p>0.05$).

3. Regardless of their experience and awareness, the three areas of the highest dental treatment demands were implant with 67.3%, aesthetics with 58.0% and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with 49.3%.

4. The required subjects for the dental hygienists following the health care liberalization were consultation and education with 80.0%, and quality of care and the customer relationship 75.3%, regardless of their experience and awareness ($p>0.05$).

Conclusion: As shown in the above, there hardly is any awareness of the opening of health care services among the dental hygienists. The dental community should make an effort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systematically, and develop curricula for improving the foreign language skills and an ability to manage the medical services.

Ⅰ. 서 론

1.1. 이론적 배경

1.1.1.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인식 조사연구

박송잔 등(2006)은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의료산업 종사자의 경영위기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의 매출규모나 증감에 대해 알고 있다는 62.2%였고 소속된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차별성이나 장점이 있다는 44.7%였다.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가 35.9%였다. 의료산업 구성원간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류향진(2006)은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의료기사직이 79.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의사직은 45.6%로 가장 낮았다. 최우선 개선과제는 1순위가 서비스 수준의 향상, 2순위는 진단 및 치료 기술 수준의 향상, 3순위는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감 해소로 조사된 결과로 국내병원의 전 직종의 직원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한현진(2004)은 전국병원에 근무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4가지의 의료서비스개방 공급형태 중에서 해외소비 형태에서 79%가 찬성하였다.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대응방안 중 병원 및 경영의 전문화, 고부가가치 서비스개발, 경영 효율화 등이 중요하다고 조사되었으나 병원의 대형화, 비용절감, 의료장비 확충의 필요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규제완화, 수가현실화로 분석되었다.

노현정(2004)은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중소병원 구성원의 의식수준을 분석한 연구로 지역사회 중심의 병원경영과 병원진료기관의 전문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1.1.2. 의료시장개방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홍현아(2007)는 조사대상자인 일반인이 38.2%정도가 의료관광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의 허용, 입국 전 원격의료 허용, 수출산업으로의 의료관광을 인정,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확대 시행, 의료관광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시아의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의료관광을 특화 한다면 대외적 홍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조구현(2006)은 의료관광을 신규 국가전략 산업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외국인환자의 유치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로 정보의 부족이 26.6%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의료관광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합한 의료관광 전략 상품 개발 필요,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 국가차원에서의 홍보 및 지원대책,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한 관련 병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손수진(2009)은 한국의료관광의 문제점으로 첫째,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산업의 시설적인 면과 제도적인 면 미흡 둘째, 의료관광과 관련된 상품과 홍보의 부족 셋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한 의료기관과 전문 의료인들이 의료관광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경쟁력 있는 의료 관광 상품들을 개발, 의료법의 과대광고금지 조항과 의료법 상 면허된 의료 행위의 범위 제한·조항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고, 외국인에 한국의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용욱(2006)은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 의료기관 관련 경영인, 의료서비스 시스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정부의 규제 중심의 의료시스템의 변화, 생명공학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원격의료분야나 첨단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 시키고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 한다면 독특한 분야의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신윤숙(2008)은 한국의료관광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에서 의료시설 및 시스

템정비 등 인프라 구축, 우수 의료 인력의 확보, 법적 정비 및 규제 완화, 의료관광 시장 확보와 특성화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 국제인증 확보 및 선진의료기관과 협력,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및 투자 유치, 선진화된 각종 서비스의 정착, 국내 병의원간의 과도한 경쟁 지양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1.1.3. 아시아 일부 국가의 사례

1.1.3.1 싱가포르

의료관광마케팅 연구에서 싱가포르는 의료서비스, 생의학 연구 센타, 의약품 생산의 중심지의 의료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신경학이나 암 연구, 장기이식 등 많은 복잡한 수술로 국제적인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제병원인증(JCIA)을 취득하여 외국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11].

싱가포르관광청의 경우 '건강관리(Health Care)'를 하나의 부서로 신설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7].

싱가포르 의료관광을 외국인에 홍보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홈페이지는 싱가포르 의료서비스 소개, 국립 및 사립 지정 의료기관의 국제 의료서비스 소개, 병원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상담에서 수속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제공, 각 외국인 시장별 현지 시스템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15].

1.1.3.2 태국

태국의 의료수준은 '국제의료평가위원회'의 인증을 아시아 최초로 2002년에 획득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9개 병원이 JIC인증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세브란스 병원이 2007년 처음으로 JCI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태국 병원들은 외국인에서 수학한 의사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치료의 질을 높여[8] 태국의 의료관광 산업은 매년 평균 27% 성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놀라운 속도 발

전하고 있다. 최근 제주 의료관광 특구의 개발 모델로 추천된 곳도 바로 태국이다[7].

태국의 의료관광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및 성공요인으로는 국제적 수준의 전문 인력, 고품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 고객의 충성도 확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수가, 외국인 고객을 위한 One-stop서비스, 전략적인 국제마케팅, 의료서비스를 관광쇼핑과 연계한 산업간 시너지 극대화 등을 들 수 있다[11].

아시아에서 태국병원들이 가장 먼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성공은 타 의료센터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었다. 태국정부는 의료관광산업에 매우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심장 및 성형수술과 같은 전문치료로도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21].

1.1.4.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연구

김민철(2008)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료관광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계층적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기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이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상품경쟁력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였으며 두 번째로 지역협력 연계성에 평가하고 있다. 11가지 의료관광분야를 선정하여 중요도에 의거한 선호도를 선출한 결과 우선순위에서는 스파 및 마사지 분야가 12.2%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치과치료는 0.42%로 가장 낮았다. 민감도 분석결과 상품경쟁력 및 의료 인프라의 중요도가 현재보다 높아지면 종합검진분야가 더 선호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치과치료는 의료 인프라에서는 낮았으나 상품경쟁력을 종합검진과 같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제주지역 주요정책요인에 따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민철 등(2008)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및 참여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한방 의료관광이 1순위를 기록하였고, 2순위는 유기농/천연약재, 3순위는 미용관광, 4순위는 양방 의료관광, 5순위는 수(水)치료관광, 6순위는 명상/종교관광으로 분석되었다.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합한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차원의 관련 법규의 정비 및 지원 대책 강구 등 적극적인 활성화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주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 7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객들이 '제주형 의료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위해 가보고 싶은 곳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제주(34.%)가 서울(42.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제주일보, 08.06.25).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광산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분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산업 내 새로운 대안으로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는 의료산업과 연계한 관광 개발로 의료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7] 대표적으로 제주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교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 유치 및 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관광호텔 등을 포함시키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24].

제주도의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할 법적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우선 외국인 우수 의료진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의 영리 의료법인이 제주도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 요양병원을 만들어 내·외국인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조성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관광레저도시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15].

1.1.5. 치과의료산업에 관한 연구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2005)은 한국 치과의료 및 관련 산업의 동북아 중심국가 육성방안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 국은 의료시장개방 등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고 자국 내 치과의료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집중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후발 국가들의 신속한 대응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치과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치과의료 중심국가로 비상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윤태(2006)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유치 활성화 방안에서 일본인 총2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아미백·임플란트 등 특정 치료 항목에 대해서 높은 수용도를 가졌고 미용성형, 라식·안성형, 한방재활 항목에 대해서 10점 만점에서 7.2점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고 치아미백, 보철, 임플란트는 유일하게 6.9점으로 같게 나타났다. 미국의 재미동포 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아미백, 교정(미용치과) 항목은 62%, 틀니, 임플란트(기능적 치과치료)는 60% 수준 이상으로 국내에서 치료할 의향이 높았다. 중국인 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아미백, 교정은 71%, 틀니, 임플란트 항목은 59%로 한국에서 치료할 의향을 60% 이상 보였다. 의료서비스 가격 경쟁력 조사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응답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성화된 의료서비스'로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서비스가 주요했고 치과분야에서는 임플란트, 보철, 심미수복이였다. 보철은 일본, 미국, 중국 모두 한국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치아미백은 일본과 미국이, 사랑니 발치(복잡매복)는 미국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1.6. 의료시장개방의 의료서비스 공급 형태의 용어

김용익[26](2002)은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Mode 1(Cross-border Supply : 국경간 공급)

Mode 1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로서 국제 전화, 원격진료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외국 의사와 우리나라 의사간의 의료지식/기술에 대한 원격 협의 및 외국 의사가 우리나라 환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 상담하는 것으로 원격진료 및 처방도 가능한 공급형태라 할 수 있다.

(2) Mode 2(Consumption Abroad : 외국인 소비)

Mode 2는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주로 외국여행 중에 진료가 이루어지거나 직접 진료를 위해 외국에 가서 의료를 이용

하는 경우로 또한 국내에서 이송된 환자가 외국에서 의료를 이용하는 유형이다. Mode 2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데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Mode 3(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

Mode 3은 첫째, 외국의 의료인이 우리나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으로 외국의 병원 자본이 우리나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유형이다. 또한 외국의 민간보험회사가 우리나라 및 외국계 의료기관과 계약체결 후 보험가입자에게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업적 주재가 이우러지는 유형이다.

(4) Mode 4(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

Mode 4는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외국의 보건의료 인력이 별도의 국낸 면허 취득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국내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유형이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 의료계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치과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인지정도를 알 수 있다.

둘째,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보완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교육요구과목을 분석할 수 있다.

1.3. 서론

세계화의 물결은 보건의료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의료부문은 공공성 및 비상업성을 지니고 있지만 세계화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분야[1]로 원격의료(telemedicime)와 같은 서비스 분야가 생기고 있는 등 교역의 확대 가능성과 더불어 선진국의 개방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개방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은 국가간 소비자의 이동 증가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증가 등 보건의료부문의 세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화 추세와 병행하여, 2001년 11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출범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협상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2].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한 인지도 조사연구에서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알고있다가 의료기사는 64.5%이고[3], 병원구성원이 38.2%[4] 였다. 제주도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54.1%로 조사되었다.

의료시장개방 대응방안으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 병원경영의 전문화, 진단 및 치료기술의 향상,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감 해소, 의료인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영 효율화로 분석되었다[3,4,5].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입국 전 원격의료 허용, 수출산업으로의 의료관광을 인정,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확대 시행,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의 허용, 의료관광비자 제도 도입을 제시하였고[4], 의료관광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 선진의료기관과 협력,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한 관련 병원의 인프라 구축,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 의료인들이 의료관광산업에 적극적인 참여, 국가차원에서의 홍보 및 지원대책,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합한 의료관광 전략 상품 개발 필요[6,7,8],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육성 및 전문통역사 양성[9]등을 제시하였다.

의료선진국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치과의료 산업 육성을 도모했고, 발 빠른 몇몇 아시아 국가도 수년 전부터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치과산업을 설정하여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다[10]. 싱가포르는 의료서비스 중심지로 태국은 성

형수술과 같은 전문치료가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헝가리 소프론에서는 임플란트 도시라고 할 만큼 치과 임플란트 관광으로 각광 받고 있다[11].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치과의료 수준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치과의료와 치과산업은 큰 국가 경쟁력 요인으로 평가되어 치과의료산업체와 연계한 치과병원 및 전문 치과클리닉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평균 의료서비스 수준은 미국 대비 80% 이상인 분야는 치과(91%),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89%) 이상이며, 진단검사(87%) 등 9개 분야로 조사되었다. 유럽보다 앞서는 분야 또한 치과, 피부과이다[12].

러시아인이 한국에서 받고 싶은 진료로 치과치료가 16.2%로 조사 되었다. 일본은 치아미백, 임플란트 항목에 대해 높은 수용도를 가졌고 미국, 중국은 한국에서 치과치료 할 의향이 60% 이상으로 조사 되었다[13].

우리나라는 1994년 제주도 전역을 비롯하여 부산 해운대, 대전 유성, 강원 설악, 경북 경주 등 5개 지역이 의료관광특구로 처음 지정되었고 이후 전남 목포시 일원 및 부산 용두산·자갈치시장 일원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2008년 3월까지 13개 시도에 26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14].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이 연계된 제주형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통해 제주도를 동북아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15].

의료시장개방이라는 환경 변화에서 단순히 현존하는 국내병원이 경쟁해야 할 대상이 증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 의료계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는 바,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의료시장개방 대비 치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목적 설정	치과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치과 의료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을 분석
⇩	
연구대상 선정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원 142개소 중 제주시 53개소(79.1%)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25명(83.3%), 서귀포시 14개소(20.9%)에 근무하는 25명(16.6%)으로 총 67개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50명
⇩	
설문지 작성	문헌고찰을 근거로 설문문항(총33문항) 작성
⇩	
설문조사	직접방문 또는 FAX, e-mail 등으로 연구목적을 설명 후 설문지 배부 후 자기기입
⇩	
연구자료분석	SPSS 12.0을 이용하여 일반적특성은 빈도분석, 일반적 특성별 인지여부와 견해, 정보습득경로는 카이제곱검정, 근무경력 및 인지여부에 따른 보완요소와 교육요구과목 분석에는 Fisher's Exact test
⇩	
고안 및 결론 도출	
⇩	
향후 연구 방안 제시	

그림1. 연구진행과정

Ⅱ.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08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발행한 회원명부[15]와 제주특별자치도청 예방의약과 자료에서 확보한 치과 의료기관 142개소 중에서 제주시112개소(78.9%), 서귀포시 30개소(21.1%)였으며 치과위생사는 제주시 269명(87.9%), 서귀포시 37명(12.1%)으로 총 30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Proportionate Sampling법을 이용하여 제주시 53개소(47.3%)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25명(46.4%), 서귀포시 14개소(46.7%)에 근무하는 25명(67.6%)으로 67개소(47.2%)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총 150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배부하였고 회수율은 100%였다.

2.2.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2009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일반적사항 4문항, 류[3],노[17]의 연구에서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 관련 5문항, 의료시장개방 보완요소 관련 9문항, 유[9],문[18]의 연구에서 치과 의료서비스 종류 4문항, 이[19]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요구교육과목 10문항을 참고하였으며 그 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제도 필요여부 1문항 등의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 5점척도(일반적사항 제외)를 사용하였다(표 1). 신뢰도는 Chronbach a=0.794였다.

<표 1> 설문문항 구성

분 류	내 용	문항	척도
일반적인 특성 (단답형)	연령, 근무경력, 직위, 근무지역	4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	인지여부	1	
	정보습득경로	1	5점
	긍·부정 견해 및 이유	3	
의료시장개방 보완요소	의료서비스질 향상 여부	1	5점
	의료시장개방시 외국인환자의 치과치료의 문제점(중복응답)	1	
	보완요소	7	5점
치과 의료서비스	치과의료서비스 종류	3	5점
	다른 의료서비스와의 협력 가능성(중복응답)	1	
의료서비스 교육요구과목	치과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제도 필요	1	5점
	교육요구과목	10	

2.3. 자료분석

SPSS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여 95% 수준에서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1) 빈도분석

연령, 근무경력, 직위, 근무지역, 긍·부정 견해와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보완요소 및 교육요구과목 등의 순위 분석 자료는 빈도분석을 하였다.

2) Chi-square test

일반적 특성과 인지여부 및 긍·부정 견해, 연령 근무경력과 치과 의료서비스 항목 등은 Chi-square 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3) Fisher's Exact test

표본이 편재되어 있는 경우 카이제곱검정 대신 5점 척도를 2점 척도로 구분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3-1)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보완요소와 연령, 근무경력, 인지여부, 견해

3-2) 교육요구과목에 따른 연령, 근무경력, 인지여부, 견해

Ⅲ.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7세였다. 연령별로는 22-25세가 36%, 26-29세가 38%, 30-35세가 26%로 나타나 26-29세가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평균 근무경력은 59.74개월 이였고 대략 5년 이였다. 근무경력별로는 4-36개월이 37.3%, 40-72개월 28.7%, 78-139개월이 34.0%로 나타나 4-36개월이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직위에서는 진료팀원이 80%로 20%인 실장급 보다 60% 많게 분포되었다. 근무지역으로는 제주시 83.3%가 16.7%인 서귀포시 보다 66.4% 많게 분포되었다(표2).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항 목	명	%
연령(세)	22-25	54	36.0
	26-29	57	38.0
	30-35	39	26.0
근무경력(개월)	4-36	56	37.3
	40-72	43	28.7
	78-139	51	34.0
직위	실장	30	20.0
	진료팀원	120	80.0
근무지역	제주시	125	83.3
	서귀포시	25	16.7

3.2.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지여부

3.2.1. 일반적 특성별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보통이다가 16.0-18.0%로 유사하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22-25세에서는 모른다가 18.0%로 가장 많았고 20%의 알고 있다와 16.0% 차이였다. 26-29세에서는 보통이다가 18.7%로 모른다의 12.0%와 6.7%, 알고있다의 7.3%와 11.4% 차이였다. 30-35세에서는 보통이다가 18.0%로 모른다의 2.7%와 15.4%, 알고있다의 5.3%와 12.7% 차이였다.

근무경력은 보통이다가 16.0-20.7%로 유사하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근무경력별로는 4-36개월에서 모른다가 18.7%로 가장 많았고 알고있다 2.7%와 16.0% 차이였다. 40-72개월에서는 보통이다가 16.0%로 모른다의 7.3%와 6.7%, 알고있다의 5.3%와 11.0% 차이였다. 78-139개월에서는 보통이다가 20.7%로 알고있다, 모른다의 6.7%와 14.0% 차이였다.

직위에 따라서는 보통이다가 유사하게 가장 많이 나타났고 실장급에서는 보통이다가 12.0%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알고있다 6.0%와 6.0%, 모른다 2.0%와 10.0% 차이였다. 진료팀원에서는 보통이다가 40.7%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모른다 30.7%와 10.0%, 알고있다 8.7%와 32.0% 차이였다.

근무지역으로는 제주시에서 보통이다가 41.3%로 가장 많았고 모른다가 28.7%로 13.4%, 알고있다 13.3%와 28.0% 차이였다. 서귀포시에서는 보통이다가 11.3%로 모른다 4.0%와 7.3%, 알고있다 1.3%와 10.0% 차이였다.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 보통이다가 유사하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알고있다가 14.7%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표3).

<표 3> 일반적 특성별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

단위:명(%)

구분	항목	알고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p값
연령(세)	22-25	3(2.0)	24(16.0)	27(18.0)	0.001*
	26-29	11(7.3)	28(18.7)	18(12.0)	
	30-35	8(5.3)	27(18.0)	4(2.7)	
근무경력 (개월)	4-36	4(2.7)	24(16.0)	28(18.7)	0.008*
	40-72	8(5.3)	24(16.0)	11(7.3)	
	78-139	10(6.7)	31(20.7)	10(6.7)	
직위	실장	9(6.0)	18(12.0)	3(2.0)	0.007*
	진료팀원	13(8.7)	61(40.7)	46(30.7)	
근무지역	제주시	20(13.3)	62(41.3)	43(28.7)	0.230
	서귀포시	2(1.3)	17(11.3)	6(4.0)	
계		22(14.7)	79(52.7)	49(32.7)	

χ^2- test, *$p<0.05$

3.2.2. 일반적 특성별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견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견해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는 잘모름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26-29세에서 22-25세 보다 6.7%, 30-35세보다 15.4% 차이로 많게 나타났다. 22-25세에서 잘모름이 18.0%로 가장 많게 나타나 긍정적 9.3%와 8.7%, 부정적 8.7%와 9.3% 차이였다.

26-29세에서는 잘모름이 24.7%로 가장 많게 나타나 긍정적, 부정적 각 6.7%로 18.0% 차이였다. 30-35세에서는 잘모름과 부정적이 각각 9.3%로 같게 나타나 긍정적 견해 7.3%와 2.0% 차이였다.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잘모름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4-36개월에서는 잘모름이 18.7%로 긍정적의 10.0%와 8.7% 부정적의 8.7%와 10.0% 차이였다. 40-72개월에서는 잘모름이 18.0%로 긍정적의 4.7%와 13.3%, 부정적의 6.0%와 12.0% 차이였다. 78-139개월에서는 잘모름이 15.3%로 긍정적의 8.7%와 6.6%, 부정적의 10.0%와 5.3% 차이였다.

직위에 따라서는 실장급에서 부정적이 8.0%, 긍정적이 6.7%, 잘모름이 5.3%로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진료팀원에서는 잘모름이 46.7%로 가장 많이 나타나 긍·부정적 견해 각 16.7%와 30.0% 차이였다.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제주시에서 잘모름이 44.0%로 가장 많이 나타나 부정적의 22.0%와 22.0%, 긍정적의 17.3%와 26.7% 차이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잘모름이 8.0%로 긍정적 견해 6.0%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부정적 견해 2.7% 보다 5.3% 차이였다.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 잘모름이 유사하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긍정적 견해가 23.3%로 낮게 나타났다(표4).

<표 4> 일반적 특성별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견해

단위:명(%)

구분	항목	긍정적	잘모름	부정적	p값
연령(세)	22-25	14(9.3)	27(18.0)	13(8.7)	
	26-29	10(6.7)	37(24.7)	10(6.7)	0.079
	30-35	11(7.3)	14(9.3)	14(9.3)	
근무경력 (개월)	4-36	15(10.0)	28(18.7)	13(8.7)	
	40-72	7(4.7)	27(18.0)	9(6.0)	0.473
	78-139	13(8.7)	23(15.3)	15(10.0)	
직위	실장	10(6.7)	8(5.3)	11(8.0)	0.007*
	진료팀원	25(16.7)	70(46.7)	25(16.7)	
근무지역	제주시	26(17.3)	66(44.0)	33(22.0)	0.216
	서귀포시	9(6.0)	12(8.0)	4(2.7)	
계		35(23.3)	78(52.0)	37(24.7)	

χ^2- test, *$p<0.05$

3.2.3. 일반적 특성별 의료시장개방 정보습득경로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정보습득경로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TV,신문이 67.3%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는 26-29세에서 TV,신문이 24.7%로 가장 많이 나타나 22-25세와는 1.3%, 30-35세와는 4.0% 차이를 보였고 동료직원과는 11.4% 차이였다. 근무경력에서는 78-139개월이 25.3%로 가장 많이 나타나 4-36개월과는 0.7%, 40-72개월과는 7.3% 차이를 보였고 동료직원 8.7%와는 16.6% 차이였다.

직위에서는 진료팀원에서 TV,신문이 50.7%로 나타나 실장급과 34.0% 차이를 보였고 동료직원과는 21.4% 차이였다. 근무지역에서는 제주시가 54.7%로 나타나 서귀포시와 42.0% 차이를 보였고, 동료직원과는 26.0% 차이였다(표5).

<표 5> 일반적 특성별 의료시장개방 정보습득경로

단위:명(%)

구분	항목	TV,신문	동료직원*	p값
연령(세)	22-25	33(22.0)	21(14.0)	0.153
	26-29	37(24.7)	20(13.3)	
	30-35	31(20.7)	8(5.3)	
근무경력 (개월)	4-36	36(24.0)	20(13.3)	0.400
	40-72	27(18.0)	16(10.7)	
	78-139	38(25.3)	13(8.7)	
직위	실장	25(16.7)	5(3.3)	0.073
	진료팀원	76(50.7)	44(29.3)	
근무지역	제주시	82(54.7)	43(28.7)	0.359
	서귀포시	19(12.7)	6(4.0)	
계		101(67.3)	49(32.7)	

Fisher's Exact test. $p<0.05$, *동료직원은 치과관련학술지 및 학술회 포함임

3.2.4.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긍·부정 견해의 순위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긍·부정 견해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긍정이유에서는 1순위에서 권위있는 진료팀이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환자의 선택권이 17.1%였다. 2순위에서는 최신 치과 의료장비가 51.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환자의 선택권이 31.4% 순으로 나타나 20.0% 차이를 보였다. 3순위에서는 세계적인 신뢰성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최신 치과 의료장비가 25.8%로 14.2%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1순위는 권위 있는 진료팀, 2순위는 최신 치과 의료장비, 3순위는 세계적인 신뢰성 이였다.

부정이유로 1순위에서는 비싼 진료비 74.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훼손과 의료의 상품화가 각각 33.3%였다. 3순위에서는 의료의 상품화 46.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기상조가 33.3%로 12.9%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1순위는 비싼 진료비, 2순위는 공공성 훼손과 의료의 상품화, 3순위는 의료의 상품화였다(표6).

<표 6>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긍·부정 견해의 순위

단위 : 명(%)

구분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긍정이유	권위있는 진료팀	**20(57.1)**	1(2.9)	4(11.4)
(N=35)	환자의 선택권	6(17.2)	11(31.4)	1(2.9)
	진료진(팀) 친절	1(2.9)	1(2.9)	2(5.7)
	깨끗한 병원환경	4(11.4)	3(8.5)	2(5.7)
	최신 치과 의료장비	4(11.4)	**18(51.4)**	9(25.8)
	세계적인 신뢰성	0(0.0)	1(2.9)	**14(40.0)**
	진료절차 간단	0(0.0)	0(0.0)	3(8.5)
부정이유	비싼 진료비	**29(74.3)**	2(5.1)	2(5.1)
(N=37)	국내 자본의 유출	1(2.6)	7(18.0)	2(5.1)
	의료의 공공성 훼손	3(7.7)	**13(33.3)**	3(7.7)
	의료산업 경쟁력 부족	4(10.3)	3(7.7)	1(2.6)
	의료의 상품화	2(5.1)	**13(33.3)**	8(46.2)
	시기상조	0(0.0)	1(2.6)	**13(33.3)**

중복응답

3.3. 의료시장개방 따른 보완요소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보완요소를 살펴보면 외국어능력함양은 필요하다가 95.3%로 가장 많게 나타나 보통이다 4.7%와 90.6% 차이였다. 서비스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가 88.0%로 보통이다 11.3%보다 76.7% 차이였다.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향상은 필요하다가 86.0%이고 보통이다는 13.3%로 72.7% 차이였다. 대기시간 불편감 해소는 필요하다가 74.0%로 보통이다 24.0%보다 50.0%, 필요없다 2.0%와 72.0% 차이였다. 이용절차개선은 필요하다가 63.3%로 보통이다 30.7%와 32.6%, 필요없다는 6.0%로 57.3% 차이였다. 의료시설 및 장비보완과 편의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가 각 61.3%로 보통이다 33.3%와 28.0% 차이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필요없다는 5.3%로 56.0% 차이였다. 보완요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어능력함양이 95.3%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비스수준의향상이 88.0%로 7.3%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진단 및 치료기술수준향상이 86.0%로 나타나 외국어능력함양과 9.3% 차이를 보였다(표7).

<표 7>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요소

단위 : 명(%)

보완요소(N=150)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없다
외국어능력함양	143(95.3)	7(4.7)	0(0.0)
서비스수준의향상	132(88.0)	17(11.3)	1(0.7)
진단 및 치료기술수준향상	129(86.0)	20(13.3)	1(0.7)
대기시간 불편감 해소	111(74.0)	36(24.0)	3(2.0)
이용절차개선	95(63.3)	46(30.7)	9(6.0)
의료시설 및 장비보완	92(61.3)	50(33.3)	8(5.3)
편의시설의 확충	92(61.3)	50(33.3)	8(5.3)
계	791(75.5)	226(21.6)	30(2.9)

3.3.1. 연령층별에 따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보완요소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보완요소를 연령층별에 따라 살펴보면 22-26세에서는 외국어능력함양이 92.6%,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향상이 91.2%로 많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기시간 불편감 해소가 88.2%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27-35세에서는 외국어능력함양이 97.6%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22-26세와는 5.0% 차이였다. 다음으로 서비스수준개선이 90.2%로 7.4% 차이를 보였고,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향상이 81.7% 순으로 나타나 외국어능력함양과 15.9% 차이였다. 전체적으로 외국어능력함양과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향상, 서비스 수준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8).

<표 8> 연령층별에 따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보완요소

단위 : 명(%)

항목	구분	필요	불필요	계	p값
서비스수준개선	22-26세	58(85.3)	10(14.7)	68(100)	0.451
	27-35세	74(90.2)	8(9.8)	82(100)	
대기시간 불편감 해소	22-26세	60(88.2)	8(11.8)	68(100)	0.000*
	27-35세	51(62.2)	31(37.8)	82(100)	
진단 및 치료기술향상	22-26세	62(91.2)	6(8.8)	68(100)	0.105
	27-35세	67(81.7)	15(18.3)	82(100)	
의료시설 및 장비보완	22-26세	41(60.3)	27(39.7)	68(100)	0.867
	27-35세	51(62.3)	31(37.8)	82(100)	
편의시설의 확충	22-26세	39(57.4)	29(42.6)	68(100)	0.402
	27-35세	53(64.6)	29(35.4)	82(100)	
이용절차개선	22-26세	41(60.3)	27(39.7)	68(100)	0.501
	27-35세	54(65.9)	28(34.1)	82(100)	
외국어능력함양	22-26세	63(92.6)	5(7.4)	68(100)	0.245
	27-35세	80(97.6)	2(2.4)	82(100)	

Fisher's Exact test, *$p<0.05$, 2×2 Contingency table.

3.3.2. 근무경력에 따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보완요소

의료시장개방 시 보완요소를 근무경력에 따라 살펴보면 5년 미만에서 외국어능력함양이 92.9%,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향상 88.2%로 4.7% 차이였고, 대기시간 불편감 해소가 83.5%로 외국어능력함양과 9.4% 차이였다. 5년 이상에서는 외국어능력함양이 98.5%, 서비스수준개선이 93.8%로 4.7% 차이였고,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향상이 83.1%로 외국어능력함양과 15.4%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외국어능력함양과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향상, 서비스수준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9).

<표 9> 근무경력에 따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보완요소

단위 : 명(%)

항목	구분	필요	불필요	계	p값
서비스수준개선	5년미만	71(83.5)	14(16.5)	85(100)	0.075
	5년이상	61(93.8)	4(6.2)	65(100)	
대기시간 불편감 해소	5년미만	66(77.6)	19(22.4)	85(100)	0.264
	5년이상	45(69.2)	20(30.8)	65(100)	
진단 및 치료기술 향상	5년미만	75(88.2)	10(11.8)	85(100)	0.477
	5년이상	54(83.1)	11(16.9)	65(100)	
의료시설 및 장비보완	5년미만	53(62.4)	32(37.6)	85(100)	0.866
	5년이상	39(60.0)	26(40.0)	65(100)	
편의시설의 확충	5년미만	50(58.8)	35(41.2)	85(100)	0.502
	5년이상	42(64.6)	23(35.4)	65(100)	
이용절차개선	5년미만	53(62.4)	32(37.6)	85(100)	0.865
	5년이상	42(64.6)	23(35.4)	65(100)	
외국어능력함양	5년미만	79(92.9)	6(7.1)	85(100)	0.140
	5년이상	64(98.5)	1(1.5)	65(100)	

Fisher's Exact test, $p<0.05$, 2×2 Contingency table.

3.3.3.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에 따른 보완요소

의료시장개방 시 보완요소를 인지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알고 있다 에서 외국어능력함양이 95.5%, 서비스수준개선이 90.9%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향상이 77.3%로 나타나 외국어능력함양과 18.2%차이를 보였다. 모른다 에서는 외국어능력함양이 81.3%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비스수준개선과 진단 및 치료기술 향상이 74.7%로 나타나 6.6%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인지여부에 따라서는 외국어능력함양과 서비스수준향상,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0).

<표10>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에 따른 보완요소

단위 : 명(%)

항목	구분	필요	불필요	계	p값
서비스수준개선	알고있다	20(90.9)	2(9.1)	22(100)	0.745
	모른다	112(87.5)	16(12.5)	128(100)	
대기시간 불편감 해소	알고있다	12(54.5)	10(45.5)	22(100)	0.035
	모른다	99(77.3)	29(22.7)	128(100)	
진단 및 치료기술 향상	알고있다	17(77.3)	5(22.7)	22(100)	0.314
	모른다	112(87.5)	16(12.5)	128(100)	
의료시설 및 장비보완	알고있다	12(54.5)	10(45.5)	22(100)	0.636
	모른다	80(62.5)	48(37.5)	128(100)	
편의시설의 확충	알고있다	13(59.1)	9(40.9)	22(100)	1.000
	모른다	79(61.7)	49(38.3)	128(100)	
이용절차개선	알고있다	11(50.0)	11(50.0)	22(100)	0.230
	모른다	84(65.6)	44(34.4)	128(100)	
외국어능력함양	알고있다	21(95.5)	1(4.5)	22(100)	1.000
	모른다	122(95.3)	6(4.7)	128(100)	

Fisher's Exact test, $^{*}p<0.05$, 2×2 Contingency table.

3.3.4. 의료시장개방 견해에 따른 보완요소

의료시장개방 시 보완요소를 긍·부정 견해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적 견해에서 외국어능력함양이 93.6%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향상이 87.2%로 나타나 6.4%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서비스수준개선이 85.9%로 나타나 7.7%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 견해에서는 외국어능력함양이 97.2%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서비스수준개선이 90.3%로 나타나 6.9%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향상이 84.7%로 12.5%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긍·부정 견해에 따라서는 외국어능력함양과 서비스수준향상,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1).

<표 11> 의료시장개방 견해에 따른 보완요소

단위 : 명(%)

항목	구분	필요	불필요	계	p값
서비스수준개선	긍정적	67(85.9)	11(14.1)	78(100)	0.459
	부정적	65(90.3)	7(9.7)	72(100)	
대기시간 불편감 해소	긍정적	63(80.8)	15(19.2)	78(100)	0.063
	부정적	48(66.7)	24(33.3)	72(100)	
진단 및 치료기술 향상	긍정적	68(87.2)	10(12.8)	78(100)	0.814
	부정적	61(84.7)	11(15.3)	72(100)	
의료시설 및 장비보완	긍정적	49(62.8)	29(37.2)	78(100)	0.739
	부정적	43(58.3)	29(41.7)	72(100)	
편의시설의 확충	긍정적	48(61.5)	30(38.5)	78(100)	1.000
	부정적	44(61.1)	28(38.9)	72(100)	
이용절차개선	긍정적	52(66.7)	26(33.3)	78(100)	0.401
	부정적	43(59.7)	29(40.3)	72(100)	
외국어능력함양	긍정적	73(93.6)	5(6.3)	78(100)	0.445
	부정적	70(97.2)	2(2.8)	72(100)	

Fisher's Exact test, $p<0.05$, 2×2 Contingency table.

3.4.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 의료서비스

3.4.1. 연령과 근무경력에 따른 치과 의료서비스

의료시장개방 시 치과 의료서비스를 연령과 근무경력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별에서 임플란트 진료가 좋을것이다는 22-25세, 26-29세에서 24.7%로 많게 나타나 30-35세의 18.0%와 5.3% 차이였고, 심미진료가 좋을것이다는 22-25세에서 23.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구강악안면 진료가 좋을것이다는 26-29세에서 19.3%로 많게 나타났다. 근무경력별에서 임플란트 진료가 좋을것이다는 4-36개월에서 25.3%, 78-139개월에서 24.0%로 많게 나타났고 심미진료가 좋을것이다는 4-36개월에서 23.3%, 78-139개월에서 20.0%로 많게 나타났다. 구강악안면 진료가 좋을것이다는 4-36개월에서 19.3%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진료가 67.4%로 가장 좋을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심미진료가 57.7% 순으로 나타났다(표12).

<표 12> 연령 과 근무경력에 따른 치과 의료서비스

단위 : 명(%)

	계	임플란트진료		p값	심미진료		p값	구강악안면진료		p값
		좋을 것이다	좋지 않을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지 않을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지 않을것이다	
연 령										
22-25세	54(36.0)	37(24.7)	17(11.3)		35(23.3)	19(12.7)		27(18.0)	27(18.0)	
26-29세	57(38.0)	37(24.7)	20(13.3)	0.882	29(19.3)	28(18.7)	0.328	29(19.3)	28(18.7)	0.895
30-35세	39(26.0)	27(18.0)	12(8.0)		23(15.3)	16(10.7)		18(12.0)	21(14.0)	
근무경력										
4-36개월	56(37.3)	38(25.3)	18(12.0)		35(23.3)	21(14.0)		29(19.3)	27(18.0)	
40-72개월	43(28.7)	27(18.0)	16(10.7)	0.720	22(14.7)	21(14.0)	0.521	21(14.0)	22(14.7)	0.885
78-139개월	51(34.0)	36(24.0)	15(10.0)		30(20.0)	21(14.0)		24(16.0)	27(18.0)	

χ^2- test, $p<0.05$, 3×2 Contingency table.

3.4.2.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에 따른 치과 의료서비스

의료시장개방 시 치과 의료서비스 항목을 인지여부 및 긍·부정견해에 따라 살펴보면 인지여부에서 임플란트 진료가 좋을 것이다는 모른다가 56.0%로 좋지 않을것이다 29.3%와는 26.7% 차이를 보였고 알고있다 11.3%와는 44.7% 차이를 보였다. 심미진료가 좋을 것이다는 모른다가 46.7%로 좋지 않을것이다 38.6%와는 8.1% 차이를 보였고 알고있다의 좋을것이다 11.3%와는 35.4% 차이를 보였다. 구강악안면 진료가 좋을 것이다는 모른다에서 43.3%로 나타나 알고있다 6.0%와는 37.3% 차이를 보였다. 긍·부정견해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진료가 좋을것이다는 부정적에서 35.3%, 긍정적에서 32.0%로 2.7% 차이를 보였고 심미진료가 좋을것이다는 부정적에서 30.7%, 긍정적에서 27.3%로 3.4% 차이를 보였다. 구강악안면 진료가 좋을 것이다는 부정적에서 27.3%, 긍정적에서 22.0%로 5.3%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임플란트가 67.3%로 가장 좋을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심미진료가 57.7%, 구강악안면 진료가 49.3% 순으로 나타났다(표13).

<표 13>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에 따른 치과 의료서비스

단위: 명(%)

	계	임플란트진료		p값	심미진료		p값	구강악안면진료		p값
		좋을 것이다	좋지 않을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지 않을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지 않을것이다	
인지여부										
알고있다	22(14.7)	17(11.3)	5(3.3)	0.334	17(11.3)	5(3.3)	0.061	9(6.0)	13(8.7)	0.490
모른다	128(85.3)	84(56.0)	44(29.3)		70(46.7)	58(38.6)		65(43.3)	63(42.0)	
견해										
긍정적	78(52.0)	48(32.0)	30(20.0)	0.122	40(27.3)	37(24.7)	0.187	33(22.0)	45(30.0)	0.102
부정적	72(48.0)	53(35.3)	19(12.7)		46(30.7)	26(17.3)		41(27.3)	31(20.7)	

Fisher's Exact test, $p<0.05$, 2×2 Contingency table

3.5.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교육 요구과목을 살펴보면 상담 및 교육 과목이 80.0%로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요구안됨 2.7%와 77.3% 차이였고, 서비스 매너는 요구됨이 75.3%였다. 고객응대는 요구됨이 75.3%로 요구안됨 2.0%와 73.0% 차이였고, 고객접점관리는 요구됨이 69.3%로 요구안됨 6.0%와 63.3% 차이였다. 서비스코디네이터는 요구됨은 68.7%로 요구안됨 4.7%와 64.0% 차이였고, 의료 환경과 고객특성은 요구됨이 60.0%로 요구안됨 8.7%와 51.3% 차이였다. 의료서비스 마케팅은 요구됨이 56.7%로 요구안됨 12.0%와 44.7% 차이였고,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방안은 요구됨이 55.3%로 요구안됨 20.7%와 34.6% 차이였다. 의료관광 보험실무는 요구됨이 54.0%로 요구안됨 14.7%와 39.3% 차이였고, 의료관광 법규의 이해는 요구됨이 46.7%로 요구안됨 20.0%로 26.7% 차이였다.

전체적으로 상담 및 교육 과목이 80.0%로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고객응대, 서비스매너가 각각 75.3%로 나타났으며 (표14).

<표 14>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단위 : 명(%)

교육과목	요구됨	보통이다	요구안됨
상담 및 교육	120(80.0)	26(17.3)	4(2.7)
서비스 매너	113(75.3)	37(24.7)	0(0.0)
고객응대	113(75.3)	37(22.7)	3(2.0)
고객접점관리	104(69.3)	37(24.7)	9(6.0)
서비스 코디네이터	103(68.7)	40(26.7)	7(4.7)
의료 환경과 고객특성	90(60.0)	47(31.3)	13(8.7)
의료서비스 마케팅	85(56.7)	47(31.3)	18(12.0)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방안	83(55.3)	36(24.0)	31(20.7)
의료관광 보험실무	81(54.0)	47(31.3)	22(14.7)
의료관광 법규의 이해	70(46.7)	50(33.3)	30(20.0)
계	962(64.0)	404(26.9)	137(9.1)

3.5.1. 연령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2-26세에서는 서비스매너, 상담 및 교육이 79.4%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객응대가 70.6%로 나타나 8.8% 차이를 보였다. 27-35세에서는 상담 및 교육이 80.5%, 고객응대가 79.3%로 많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비스매너가 72.0%로 나타나 상담 및 교육과 8.5% 차이였다. 전체적으로 상담 및 교육과 서비스매너, 고객응대 과목이 요구되었다(표15).

<표 15> 연령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단위 : 명(%)

항목	구분	요구됨	요구안됨	계	p값
서비스코디네이터	22-26세	45(66.2)	23(33.8)	68(100)	0.598
	27-35세	58(70.7)	24(29.3)	82(100)	
서비스매너	22-26세	54(79.4)	14(20.6)	68(100)	0.344
	27-35세	59(72.0)	23(28.0)	82(100)	
고객접점관리	22-26세	46(67.4)	22(32.6)	68(100)	0.724
	27-35세	58(70.7)	24(29.3)	82(100)	
고객응대	22-26세	48(70.6)	20(29.4)	68(100)	0.256
	27-35세	65(79.3)	17(20.7)	82(100)	
상담및교육	22-26세	54(79.4)	14(20.6)	68(100)	1.000
	27-35세	66(80.5)	16(19.5)	82(100)	
의료서비스마케팅	22-26세	36(52.9)	32(47.1)	68(100)	0.414
	27-35세	49(59.8)	33(40.2)	82(100)	
의료환경과고객특성	22-26세	39(57.4)	29(42.6)	68(100)	0.616
	27-35세	51(62.2)	31(37.8)	82(100)	
의료관광보험실무	22-26세	35(51.5)	33(48.5)	68(100)	0.623
	27-35세	46(56.1)	36(43.9)	82(100)	
의료관광법규이해	22-26세	29(42.6)	39(57.4)	68(100)	0.413
	27-35세	41(50.0)	41(50.0)	82(100)	
외국인환자의료사고	22-26세	35(51.5)	33(48.5)	68(100)	0.413
해결방안	27-35세	48(58.5)	34(41.5)	82(100)	

Fisher's Exact test, $p<0.05$, 2×2 Contingency table.

3.5.2. 근무경력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을 근무경력에 따라 살펴보면 5년 미만에서는 상담 및 교육이 78.8%, 서비스매너가 76.5%로 많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객응대가 68.2%로 나타나 상담 및 교육과 10.6% 차이였다. 5년 이상에서는 고객응대가 84.6%, 상담 및 교육이 81.5%로 많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비스코디네이터가 75.4%로 나타나 고객응대와는 9.2% 차이였다. 전체적으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매너, 서비스코디네이터 과목이 요구되었다(표16).

<표 16> 근무경력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단위 : 명(%)

항목	구분	요구됨	요구안됨	계	p값
서비스코디네이터	5년미만	54(63.5)	31(36.5)	85(100)	0.155
	5년이상	49(75.4)	16(24.6)	65(100)	
서비스매너	5년미만	65(76.5)	20(23.5)	85(100)	0.849
	5년이상	48(73.8)	17(26.2)	65(100)	
고객접점관리	5년미만	56(65.9)	29(34.1)	85(100)	0.372
	5년이상	48(73.8)	17(26.2)	65(100)	
고객응대	5년미만	58(68.2)	27(31.8)	85(100)	0.023*
	5년이상	55(84.6)	10(15.4)	65(100)	
상담및교육	5년미만	67(78.8)	18(21.2)	85(100)	0.837
	5년이상	53(81.5)	12(18.5)	65(100)	
의료서비스마케팅	5년미만	44(51.8)	41(48.2)	85(100)	0.186
	5년이상	41(63.1)	24(36.9)	65(100)	
의료환경과고객특성	5년미만	48(56.5)	37(43.5)	85(100)	0.401
	5년이상	42(64.6)	23(35.4)	65(100)	
의료관광보험실무	5년미만	40(47.1)	45(52.9)	85(100)	0.069
	5년이상	41(63.1)	24(36.9)	65(100)	
의료관광법규이해	5년미만	34(40.0)	51(60.0)	85(100)	0.071
	5년이상	36(55.4)	29(44.6)	65(100)	
외국인환자의료사고 해결방안	5년미만	41(48.2)	44(51.8)	85(100)	0.049*
	5년이상	42(64.6)	23(35.4)	65(100)	

Fisher's Exact test, *$p<0.05$, 2×2 Contingency table.

3.5.3.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의료시장개방 시 치과위생사 교육 요구과목을 인지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알고있다에서는 상담 및 교육이 90.93%, 고객접점관리와 고객응대가 각 77.3%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른다에서는 상담 및 교육이 78.1%, 서비스매너가 77.3%, 고객응대가 75.0%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인지여부에 따라서는 상담 및 교육과 고객응대, 서비스매너, 고객접점관리 과목이 요구되었다(표17).

<표 17>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단위 : 명(%)

항목	구분	요구됨	요구안됨	계	p값
서비스코디네이터	알고있다	14(63.6)	8(36.4)	22(100)	0.622
	모른다	89(69.5)	39(30.5)	128(100)	
서비스매너	알고있다	14(63.6)	8(36.4)	22(100)	0.185
	모른다	99(77.3)	29(22.7)	128(100)	
고객접점관리	알고있다	17(77.3)	5(22.7)	22(100)	0.460
	모른다	87(68.0)	41(32.0)	128(100)	
고객응대	알고있다	17(77.3)	5(22.7)	22(100)	1.000
	모른다	96(75.0)	32(25.0)	128(100)	
상담및교육	알고있다	20(90.9)	2(9.1)	22(100)	0.249
	모른다	100(78.1)	28(21.9)	128(100)	
의료서비스마케팅	알고있다	13(59.1)	9(40.9)	22(100)	0.821
	모른다	72(56.3)	56(43.7)	128(100)	
의료환경과고객특성	알고있다	15(68.2)	7(31.8)	22(100)	0.484
	모른다	75(58.6)	53(41.4)	128(100)	
의료관광보험실무	알고있다	12(54.5)	10(45.5)	22(100)	1.000
	모른다	69(53.9)	59(46.1)	128(100)	
의료관광법규이해	알고있다	11(50.0)	11(50.0)	22(100)	0.819
	모른다	59(46.1)	69(53.9)	128(100)	
외국인환자의료사고 해결방안	알고있다	13(59.1)	9(40.9)	22(100)	0.818
	모른다	70(54.7)	58(45.3)	128(100)	

Fisher's Exact test, $p<0.05$, 2×2 Contingency table.

3.5.4. 의료시장개방 견해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의료시장개방 시 치과위생사의 교육 요구과목을 긍·부정 견해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적 견해에서는 서비스매너와 상담 및 교육이 73.1%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객응대가 67.9%로 나타나 5.2% 차이였다. 부정적 견해에서는 상담 및 교육이 87.5%, 고객응대가 83.3%로 많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비스코디네이터와 고객접점관리가 79.2%로 나타나 8.3%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긍·부정 견해에 따라서는 상담 및 교육과 고객응대, 서비스매너 교육과목이 요구되었다(표18).

<표 18> 의료시장개방 견해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

단위 : 명(%)

항목	구분	요구됨	요구안됨	계	p값
서비스코디네이터	긍정적	46(59.0)	32(41.0)	78(100)	0.009*
	부정적	57(79.2)	15(20.8)	72(100)	
서비스매너	긍정적	57(73.1)	21(26.9)	78(100)	0.572
	부정적	56(77.8)	16(22.2)	72(100)	
고객접점관리	긍정적	47(60.3)	31(39.7)	78(100)	0.014*
	부정적	57(79.2)	15(20.8)	72(100)	
고객응대	긍정적	53(67.9)	25(32.1)	78(100)	0.037*
	부정적	60(83.3)	12(16.7)	72(100)	
상담및교육	긍정적	57(73.1)	21(26.9)	78(100)	0.040*
	부정적	63(87.5)	9(12.5)	72(100)	
의료서비스마케팅	긍정적	42(53.8)	36(46.2)	78(100)	0.512
	부정적	43(59.7)	29(40.3)	72(100)	
의료환경과고객특성	긍정적	40(51.3)	38(48.7)	78(100)	0.030*
	부정적	50(69.4)	22(30.6)	72(100)	
의료관광보험실무	긍정적	39(50.0)	39(50.0)	78(100)	0.329
	부정적	42(58.3)	30(41.7)	72(100)	
의료관광법규이해	긍정적	36(46.2)	42(53.8)	78(100)	1.000
	부정적	34(47.2)	38(52.8)	72(100)	
외국인환자의료사고	긍정적	44(56.4)	34(43.6)	78(100)	0.870
해결방안	부정적	39(54.2)	33(45.8)	72(100)	

Fisher's Exact test, *$p<0.05$, 2×2 Contingency table

Ⅳ. 총괄 및 고안

의료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병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의료산업종사자의 의료시장개방과 대응방안,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활용할 필요성을 보고한 연구 자료가 최근에 많이 제시 되고 있다.

이에 치과 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시장개방에 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치과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1994년 8월 제주도 전역을 비롯하여 부산 등 5개 지역이 의료관광특구로 처음으로 지정된 바,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원 142개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306명 중 Proportionate Sampling법을 이용하여, 67개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총 150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문항은 류[3],노[17]의 연구에서 의료시장개방 인지여부 관련 5문항, 의료시장개방 보완요소 관련 9문항, 유[9],문[18]의 연구에서 치과 의료서비스 종류 4문항, 이[19]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요구교육과목 10문항을 등을 참고하여 연구에 맞게 추출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고자 5점 척도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나 분석 시에는 2점 척도로 정리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22-25세가 36.0%, 26-29세는 38.0%로 전체대상자 중에서 74.0%를 차지하고 있었고, 진료팀원이 80%였으며, 근무지역은 제주시가 83.3%로 가장 많아 20대이면서 진료팀원으로 제주시 근무자가 본 조사 대상자로서 연구에 이용되었다(표2).

치과위생사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지는 전체의 14.7%로 나타났고 근무경력 7-11년에서 6.7%로 3년 미만의 2.7%와 4.0% 차이를 보여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인지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표3) 의료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박 등[20](2006)은 알고있다가 35.9%인 것에 비해 21.2% 차이로 낮았고, 노[17](2004)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알고있다가 19.8%인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근무경력 10년 이상이 36.0%로 2년 미만의 19.8%보다 16.2% 차이로 나타나 근무경력이 높을 수록 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홍[4](2007)은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8.2%인 것에 비해 23.5% 차이로 낮았고, 2008년 7월 제주도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한 인지도부분에서 알고있다가 54.1%인 것에 비해 39.4%의 차이로 낮았다. 치과위생사의 인지정도가 낮은 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정도의 수준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치과위생사의 관심사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시장개방 긍·부정 견해에서는 긍정적 견해는 전체의 23.3%로 나타났고(표4), 근무경력 4-36개월에서 10.0%로 나타나 40-72개월의 4.7%와 5.3% 차이를 보여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긍정적 견해가 높게 나타나(표4)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류[3](2006)의 의료기사직의 찬성이 79.7%인 것에 비해 56.4%, 한[5](2004)의 연구에서 찬성이 78.4%인 것에 비해 55.1%, 박[20](2006)의 긍정적인 응답이 64.9%인 것에 비해 41.6% 차이로 낮았다. 노[17](2004)의 연구에서 간호부의 찬성이 19.5%인 것에 비해 3.8%정도 높았고, 근무경력이 5-10년 미만이 28.6%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2년 미만에서 23.4%로 나타나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찬성이 많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주관적 인지정도가 보통이다로 긍·부정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긍정적 견해의 이유는 1순위가 권위있는 진료팀으로 57.1%, 2순위는 최신 치과 의료장비가 51.4%, 3순위는 세계적인 신뢰성이 40.0% 순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견해의 이유는 1순위가 비싼 진료비로 74.3%, 2순위는 의료의 공공성 훼손이 33.3%, 3순위로는 의료의 상품화가 46.2%로 나타났다(표6). 이 결과는 박[20](2006)의 연구에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국민의료비상승이 65.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노[17](2004)의 연구에서 간

호부에서의 찬성이유는 서비스의 개선 및 다양화로 나타났고 반대이유 중 의료서비스의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의 이유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의원 보완요소는 근무경력과 인지여부 및 견해에 관계없이 외국어능력함양이 95.3%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서비스수준의개선이 88.0%,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 향상이 86.0% 순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나타나(표7-11) 이는 병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17](2004)는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양화가 73.1%, 직원친절서비스 교육 및 훈련이 65.5%, 의사들의 의식 계혁이 64.8% 순으로 나타났고, 류[3](2006)의 연구에서 의료기사직의 현안과제는 1순위로 병원직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32.9%, 2순위로 진단 및 치료기술의 향상이 32.9%, 대기시간 불편감 해소가 12.7%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손[7](2009)의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의료진의 언어능력 및 환자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문[18](2006)의 연구에서 외국인 환자 치료에 있어 문제점으로 언어소통의 문제(30.4%), 의료비 부담의 문제(21.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장개방 시 치과 의료서비스에서 연령과 근무경력, 인지여부 및 견해와 관계없이 모두 임플란트 진료가 좋을 것이다가 67.3%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심미진료 58.0%, 구강 악안면 진료가 49.3% 순으로 나타났다(표12-13).

이는 류[3](2008)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치료 성적이 탁월한 의료서비스 부문으로 임플란트, 보철, 심미수복으로 보고하였다. 김 등[21](2008)의 연구에서 의료관광 전문분야로서 잠재력이 높은 분야가 건강검진과 치과 (임플란트, 63.9%), 성형(13.9%), 한방(12.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12]의 연구에서 미국 대비 80% 이상인 분야는 치과(91%),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89%) 이상이며, 진단검사(87%) 등 9개 분야로 조사되었다. 유럽보다 앞서는 분야 또한 치과, 피부과로 나타났다. 이[13](2006)의 보고서에서 일본·중국·미국(재미교포)인들의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조사 결과 일본인들은 치아미백, 임플란트 등의 특정 치료 항목에 대해서 높은 수용도를 가지

고 있고 미국인들은 치아미백, 교정(미용치과) 등의 항목에서 62%, 틀니, 임플란트가 60%로 비교적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불능력이 있는 중국인들은 치아미백, 교정, 임플란트 등의 항목에서 한국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의향을 60% 이상 보였다.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 요구과목에서 상담 및 교육이 80.0%로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매너, 고객응대가 75.3%, 고객접점관리가 69.3% 순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4). 이는 이[19](2009)의 교육요구 주제 중 상담 및 교육실무(4.40)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객응대(4.31)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했고 유 등[22](2005)은 병원코디네이터 희망교육으로 환자응대기술 84.8%, 상담기술 81.8%로 보고하였고, 권 등[23](2005)등은 치과코디네이터수행업무로 예약관리 88.9%, 서비스매너 87.9%로 보고하였다. 이는 환자상담 및 교육실무가 의료시장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치과 의료서비스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은 첫째, 이론적으로 각 설문문항의 척도 수치는 단지 의미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각 설문문항 구성의 신뢰도는 측정할 수가 없어 전체 신뢰도만 측정하였으며 설문지 문항 구성이 체계적이지 않아 신뢰성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 둘째, 제주지역만으로 제한하여 조사한 바 표본수가 편재되어 있어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2점 척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치과 의료분야에서의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체계적으로 비교하기에 부족하였다. 넷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하여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부족하였다.

향후 유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 구성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치과위생사뿐만 아니라 치과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의료산업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의료시장개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 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의료시장개방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의료시장개방 대비 치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주도 전역을 비롯하여 부산 등 5개 지역이 의료관광특구로 처음으로 지정된 바,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원 142개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306명 중 67개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법을 이용하여 인지여부는 Chi-square test, 보완요소, 교육 요구과목 등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료시장개방에 관한 인지는 14.7%였고($p<0.05$), 긍정적 견해는 23.3%였다($p>0.05$).

2.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보완요소는 근무경력과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어 능력함양이 95.3%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수준의 향상이 88.0%, 진단 및 치료기술수준향상이 86.0% 순이였다($p>0.05$).

3. 의료시장개방 시 필요한 치과 의료서비스 분야로는 근무경력과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임플란트진료 67.3%, 심미진료 58.0%, 구강악안면진료가 49.3% 순이었다($p>0.05$).

4.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요구과목은 근무경력과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상담 및 교육이 80.0%, 서비스매너와 고객응대가 각각 75.3% 순이였다($p>0.05$).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지가 매우 낮은 바 치과계에서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외국어 능력과 의료서비스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목을 개발해야 한다.

참고문헌

1. Douglas W. Bettcher, Derek Yach, G.Emmanuel Guindon, "Global trade and health: Key linkages and future challenges",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78(4)
2. 정영호, 고숙자. WTO/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협상쟁점 및 영향력 고찰. 국제지역연구 2005;9(2):108-139.
3. 류향진, 유승흠, 박은철, 김정인, 손태용. 병원직원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조사. 병원경영학회지 2006;11(3):56-72.
4. 홍현아.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5. 한현진.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병원인의 인식도 조사.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병원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6. 조구현.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006;15(4):189-203.
7. 손수진.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명연지. 2009;22호:9-35.
8. 신윤숙. 한국의료관광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문명연지, 2008;21:41-70.
9. 유지윤. 관광산업 복·융합화 촉진 방안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2006.
10.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한국 치과의료 및 관련 산업의 동북아 중심국가 육성방안. 보건복지부, 2005.
11. 류인평. 의료관광마케팅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2008;12(3):1-20.
12.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치과의료산업 현황분석 및 선진화 전략 연구, 보건복지부, 2007.
13. 이윤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유치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정책보고서. 2006-108.
14. 유지윤. 의료관광 특구 도입에 관한 연구 -관광특구 테마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15. 김민철. AHP를 이용한 제주지역 의료관광 분야의 우선순위분석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008;22(4)
16.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명부 2008:288-289.
17. 노현정.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8. 문혜경. 한국의 의료허브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전략.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9. 이윤정. Dental Hygienist Coordination System 개발 교육주제 요구조사.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0. 박송잔, 우덕구, 류호균.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료산업 종사자의 경영위기 인식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06;19(2);857-879.
21. 김도영, 김맹선. 의료관광 마케팅 전략 모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008;22(2):261-281.
22. 유형식, 김기훈. 병원코디네이터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연구. 경북전문대학논문집 2005;23(1);493-523.
23. 군순복, 김영남, 문희정, 신명숙, 한경순, 한수진.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 및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5;5(4):211-220.
24. 김민철, 문성종, 부창산. 제주지역 내 의료관광 기초 조사를 통한 추진 모형 수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08;14(4):382-393.
25. 김용욱. 의료시장 개방에 다른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충북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2006.
26. 김용익.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2:69-70.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보건학과	학 번	20088609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이명희 한문: 李明姬 영문 Lee, Myung Hee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040-33번지				
연락처	E-MAIL: loveni0120@hanmail.net				
논문 제목	한글 :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원 중심으로- 영문 :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Opening of Health Care Service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2010년 2월 일

저작자: 이명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